

## 제 9차 한·인도 임업위원회를 마치고

윤 경 덕 / 산림청 수출진흥과

### 1. 머리말

한·인도 임업위원회는 제 9차 회의부터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는데, 최초의 양국 산림청장 회의는 1979년 2월 자카르타에서 있었다.

그러나 제 1차 회의 이전부터 양국 청장간의 상호 왕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한국남방개발(주)을 비롯하여 수개의 아국 산림개발 업체가 1968년부터 인니에 진출함으로써 한·인간 임업협력은 더욱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회의의 시동과 발전

이와같이 한·인간의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됨에 따라 1975년 서울에서 양국 산림청장이 한·인니 임업협력에 관한 협의 각서를 체결하였고, 1977년 4월 수자로 인니 산림청장이 아국의 한국대학교에서 명예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양국의 임업협력 관계는 더욱 가속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1979년 2월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제 1차 회의에서는 한·인니간 산림청장 연례회의를 매년 서울과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근거로 회의를 계속 개최해 왔는데 제 4차 회의까지는 산림청장 회의로 그 명칭을 사용하다가 1983년 3월 17일 수자로 인니 산림청장이 승격된 임업성 장관이 됨으로써 회의 상대방이 달라지게 되어 그 해 제 5차 회

의부터는 한·인니 임업협력 연례회의로 명칭이 바뀌고 우리측 청장의 인니측 당사자는 차관보급인 임업성의 산림이용 개발청장이 되고 합의 의사록은 양측회의 당사자 서명에 의하여 양국 장관의 추인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 3. 임업분야 협력에 대한 협정 체결

그러나 인니측은 1983년 임업성으로 승격되면서 이 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킬 것을 검토하고, 1984년 6월 우리측에 양국간의 임업분야 협력에 관한 쌍무협정 체결을 제의하여 아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그 해 8월에 개최된 제 6차 회의에서 아측 내무부 장관과 인니측 임업성 장관간에 임업분야 협력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이미 작성된 동협정 시안에 대한 검토와 각기 자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한후 1987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 8차 회의 기간중의 6월 20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임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아국 정부를 대표한 당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인니 정부를 대표한 당시 임업성 장관간에 서명하여 1987년 7월 20일 발효하였고 전문 9 조로된 본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국간의 임업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나. 정보의 교환, 전문가 및 전문지식의 교환, 투자가의 보호, 공동연구 및 훈련등

의 장려를 통하여 입업협력 관계촉진

다. 입업연구원 및 기관과의 상호 관계 수립, 전문가 및 기술자에 대한 연구비 등 주선

라. 장관급의 입업위원회 설치 및 본회의를 최소한 2년에 1회 양국 교대 개최

마. 서명일로부터 30일후 발효하되 5년간 유효하며 별도 서면 통고가 없으면 2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것 등이다.

#### 4. 제9차 회의의 개최

##### 가. 정부 대표간 본 회의

입업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첫 회의는 1988년 자카르타에서 갖기로 하였으나 그해 국내 정치 일정 및 서울올림픽 개최 등 아측 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금년에야 지난 6월14일-22일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위 협정에 의해 장관급으로 격상된 최초의 회의였지만 공식 명칭은 제9차 한·인니 입업위원회로 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 본회의는 자카르타의 입업성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데 아측은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을 수석대표로하여 5명이 참석하였고 인니측은 하스즈렐 하라하프 입업성장관을 수석대표로하여 14명이 참석하였는 바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 (1) 아국 진출업체 지원

○목재가공(합판)공장을 보유한 아국업체에 대하여 원활한 원목 공급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인니측에서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기로함.

○오지인 이리안자야지역에 진출한 업체에 대하여 인니의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제반 혜택을 제공하기로하고 다른 아국업체가 진출할 때에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로함.

##### (2) 인니 입업공무원 초청교육

###### (가) 입학 석사학위 취득 지원

이미 지명된 후보자 1명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1990년 상반기중에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에 입교되도록 조치하겠으나 매년 계속적인 초청 입교는 인원 수요상 곤란함으로 선임자의 학위 취득이 끝나면 고려하기로함.

###### (나) 조림 및 지도사업 관련 산화훈련

산화 훈련은 가급적 매년 실시되도록 노력하되 훈련생이 수개국에서 참가하여 수료과정의 수요가 다양함으로 산화훈련만의 전 교육 과정은 어려운 일임을 인식하게 함.

또한 인니에서 직무훈련을 할 수도록 아국인 전문가를 파견하기로함.

##### (3) 조림지 조성 참여

○인니에 시범조림을 실시하기로하고 인니측은 조림지를 비롯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여 제공하기로함.

○민간 기업인의 조림진출을 적극 주선하기로 하고 조림생산 가공목에 대한 수출 허가등 투자혜택을 주는데 호의적인 고려를 하기로함.

##### (4) 未利用 수종 연구 계속

○미이용 수종 연구사업은 양국의 입업협력상 중요한 사업이나 그간 공시목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의 적기 확보에 노력하기로함.

○현재 각기 보유하고있는 미이용수종연구결과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가까운 장래에 교환하기로함.

##### (5) 목재 가공품 무역거래 협력

임산물 무역에 있어 각기 자국 민간수출입 업체의 지도에 상호 협력하여 양국간에 원활한 무역거래 관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기로함.

##### (6) 실무위원회 설치

임업위원회 아래 연구개발·훈련 및 산림사업 촉진분야등에 관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기로함.

### (7) 차기회의 개최시기 및 장소

차기회의는 1991년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하는등 7개항이다.

#### 나. 양국 정부 및 업계대표 합동회의

이 회의는 양국 정부대표와 함께 양국 업계대표 즉 아국 산림개발 진출업체 대표와 印尼측합작당사자들이 모여 갖는 합의로서 본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토론·협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는 6월17일 발리에서 가졌으며 양측에서 26명이 참석하였고, 아측 업계대표로는 승상배 해외산림개발회장과 최효석 유원건설(주) 회장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여러가지가 협의되었지만 본회의 합의사항과 중복을 피하고 지면 관계상 그 요지만을 설명하면

(1) 이라난자야는 낙후된 지역이므로 투자 혜택을 제공하겠으며, 외국인 취업예정자 신원조회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음.

(2) 목재가공업체의 임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개발계약을 준수하고, 원목조달을 위해 원목을 수입하여도 무방하며, 원목수입을 위해서 무역성장관과 관세를 검토하도록 협의하겠음.

(3) 조림지 생산원목의 수출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목재가공 공장이 먼저 설립되는 경우에는 소요원목 공급을 위해 새로운 임지개발권을 제공하겠음.

(4) 印尼의 입장에서보면 합판이 소재(보통합판)보다는 가공합판의 수출 증가가 중요한 바 한국의 수입관세 인하 및 잡목의 합판원료 이용을 위해 기술지원등이 필요함.

(5)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최소한 연 1회 정도의 실무자 모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등이다.

### 5. 맺는말

한·印尼 임업분야 협력관계는 앞서말한 바와같이 비교적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간 양국의 임업협력 강화와 우의 증진에 본 임업위원회가 기여한 공로는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회의를 개최해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측의 회의당사자가 너무 자주 바뀐 점인데, 이는 자원의교라는 성격상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

또한 이 임업위원회안에는 양측의 청장이 위원장이되는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어느 외국인을 대해서도 그러하듯 우리가 그간 印尼측에 과잉 친절이나 지나친 호의를 베풀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한 것이 이번 회의에 다녀온 값진 경험중의 하나였다.

印尼 사람들이 하는 일상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고유의 말에다 어휘상 영어·독어 같은데서 많은 외래어를 빌어쓰고 문자 자체가 알파벳을 사용해서 그런지 대체로 영어를 하는 관료들이 많았고 그 수준도 비교적 높아 보였으며, 거기에다 임업성 본부 직원만도 3천명이 된다하여 우리의 현실을 떠올려 봤었다.

외교에는 원래 각자 국익을 꾀어준 대등한 대화가 있는 것이므로 가시적인 성과를 성급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자원개발이나 임업협력에 있어 특히 민간업계의 활동이나 그 영역에 크나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므로 앞으로 본 임업위원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